‘민원 유발 가로수’ 광주 도심서 사라진다

〈은행나무·플라타너스·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열매 악취·플라타너스 전기선 안전사고 위험

메타세쿼이아 뿌리 하수관로 막아…市, 2017년부터 대체

가을이면 열매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로 불편을 줬던 암컷 은행나무가 오는 2017년부터 광주 도심에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커다란 키로 전기선과 부딪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가 하면 뿌리로 도로변을 훼손하는 ‘민원 유발 가로수’ 플라타너스, 메타세쿼이아의 절반도 광주시의 수종 개량 계획에 따라 대체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생활민원이 집중되는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플라타너스 등 도심 가로수 3종을 대체 종으로 개량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가로수별 개량 규모는 메타세쿼이아 5300그루, 플라타너스 1800그루, 은행나무 8000그루 등 1만5000여 그루다. 광주시 가로수 중 메타세쿼이아와 플라타너스는 각각 9563그루, 4336그루다.

특히 은행나무의 경우 전체 4만2593그루 중 암컷 은행나무 8000여 그루는 모조리 뽑아내고 수컷 나무를 심을 예정이어서 매년 가을이면 반복됐던 은행 열매 악취 불편도 점차 수그러들게 됐다.

광주시가 은행나무와 함께 메타세쿼이아, 플라타너스를 민원 유발 가로수로 지목하고 대체하기로 한 것은 매년 쏟아지는 생활 민원과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이었다.

메타세쿼이아는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나무 뿌리가 하수관로를 파고들어가 하수의 흐름을 막는가 하면 인도 표면을 훼손해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플라타너스의 경우 20~30m 높이로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모습이 근사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큰 키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상가 밀집 구역에 심어진 플라타너스는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전신주와 전기·통신선에 인접한 나무들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것이다.

실제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가로수 관련 민원 851건 가운데 70%는 ‘가지치기를 해달라’(547건), ‘뿌리 제거를 해달라’(66건)는 것으로, 고사목 제거와 은행나무 열매 처리 요청(50건)보다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해 우선지역을 정한 뒤 오는 2017년부터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이아, 플라타너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이팝나무나 보리수 등으로 대체하고 암컷 은행나무의 경우 전체를 수컷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가로수는 은행나무 4만2593그루, 느티나무 2만9628그루, 이팝나무 1만7604그루, 왕벚나무 1만1676그루 등 29종 13만9848그루가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완도수목원 ‘붉가시나무’ 기후변화 최적 대응 수종

슈퍼 엘니뇨 등 기상이변이 심해지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의 최적 수종은 ‘붉가시나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의 강진택 박사팀이 국내 온·난대 주요 산림수종 가운데 침엽수 9종과 활엽수 6종의 탄소 저장량과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붉가시나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소 저장량은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를 이용해 산정한다.

15개 수종 가운데 상록활엽수인 붉가시나무는 ㎥당 0.840탄소톤(tC)으로 가장 높았고 낙엽 활엽수인 신갈나무(0.738tC), 졸참나무(0.731tC)가 뒤를 이었다. 반면 침엽수인 해송(0.473tC)과 잣나무(0.459tC), 리기다소나무(0.418tC)는 활엽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윤현석기자 chadol@

양림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개청 광주시 남구가 24일 윤장현 광주시장, 최영호 남구청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림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양림오거리에 자리한 센터는 주민센터, 양림동 역사 홍보관 등을 갖추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모든 중학교 자유학기제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콤플렉스였던 소극적 성격이 바뀌고 친구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나 뿐만 아니다. 말수가 없고 조용했던 친구들도 변하고 밝아졌다. ….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변하는구나” 〈정광중 2학년 홍모양〉

교육부가 내년 전면 시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보다 1년 앞당겨 올해 모든 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1학년 2학기에 전면 도입한다.

학교별 희망 시기와 중학교 생활의 적응도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교육 당국 설명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91개 중학교에서 92개로, 전남도교육청은 177개에서 250개 중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주당 10시간) 이상 편성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학교당 평균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자유학기제 강사 초빙과 현장학습 지원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교육부는 전국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을 위해 현재 전국 7만8993개 체험장의 16만3613개 프로그램을 확보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뜸	07:16	달뜸	17:07
해짐	17:22	달짐	06:01

두터운 외투 준비하세요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늦게 눈으로 바뀌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리고한때비	6/9	보 성	흐리고한때비	5/8
목 포	흐리고한때비	6/10	순 천	흐리고한때비	7/10
여 수	흐리고한때비	7/9	영 광	흐리고 비·눈	5/8
나 주	흐리고한때비	6/9	진 도	흐리고한때비	6/10
완 도	흐리고한때비	6/10	전 주	흐리고 비·눈	6/7
구 례	흐리고 비·눈	5/9	군 산	흐리고 비·눈	5/8
강 진	흐리고 비·눈	6/10	남 원	흐리고 비·눈	5/7
해 남	흐리고 비·눈	5/9	흑산도	흐리고한때비	7/10
장 성	흐리고 비·눈	5/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2.0~3.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	북서~북	0.5~1.5
	먼바다(동)	북~북동	1.5~3.0	북서~북	1.5~2.5
	먼바다(서)	북~북동	1.5~3.0	북서~북	1.5~2.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0:59	06:25
	13:39	18:59
여수	08:29	01:59
	20:41	14:30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낮음
체감온도	관심

◇ **주간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12/1(화)	2(수)
6/9	0/5	1/8	3/10	3/10	2/11	2/10

137개 전문대 3만4268명 선발

2016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37개 전문대학이 3만4268명을 뽑는다. 정원 감축 등의 여파로 전년도(4만52명)에 비해 5784명 감소한 수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정시모집 전체 인원의 65.6%인 2만2496명(132개 대학)은 일반전형으로, 1만1772명(정시 모집인원의 34.4%)은 124개 대학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문대는 정시 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하지 않아 수험생은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정시모집 인원 비율은 2014학년도 19.5%, 2015학년도 17.9% 등으로 감소 추세다.

모든 전문대학이 다음달 24일부터 일제히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 들어가며 1차 접수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 2차는 내년 2월 11일~15일까지 5일간 접수받는다.

단, 1·2차로 나뉜 정시모집에서는 2차 모집을 하지 않는 대학이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1차 접수 마감 이후 2차 접수 실시 여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일반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더라도 전문대학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수시 충원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므로 수험생은 각 대학의 충원합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내년부터 아동학대 적발 유치원 폐쇄

내년 상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